불교교과서 '質' 높아진다

내용-판형 개편…컬러사진 3백컷 실어

내년 21개 종립 중·고교 신입생에 보급

불교의 사회활동과 시대흐름에 중점을 둔 내용이 보완되고, 외형이 바뀌는 등 중등 불교교과서가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질이 크게 향상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교육인적자원부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불교교과서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아래 교과내용 및 판형 등에 대한 개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포교원은 이달 말까지 개편된 편집시안을 마련, '서울특별시교육감인정 도서'를 신청해 심의를 거친 후 올해 말 인쇄에 들어가 내년도 21개 중고교 종립학교 신입생들에게 새 교과서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대원정사에서 불교교과서를 편찬해 왔으나, 이번 7차 교육과정 개편부터 조계종 포교원이 맡게 됐다.

이번 개편에 따라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부분은 교과서 외형.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기존 1,2,3학년 각 1권으로 구분돼 있던 것이 300쪽 분량의 한 권으로 통합되며, 중고교 교과서 모두 판형이 기존 신국판(154×210)에서 4×6배판(188×258)으로 커진다. 종이의 질도 현재의 교과서 용지에서 모조지로 한 등급 높일 방침이다.

교과 내용도 보완된다. 중학 교과서의 경우 종교의 의미와 본질, 종교의 역할 및 기능 등 종교의 사회성 측면을 고려한 내용이 보강되며, 유교 및 크리스트교와 문화 등 타종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원들이 추가된다. 고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종교적 인간관, 종교적 자연관 등 시대흐름에 필요한 단원이 신설된다.

특히 교과서에 실리는 사진의 경우 현재 50여 컷의 흑백사진은 250~300여 컷의 컬러사진으로 바뀌며, 통일 환경 복지 등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에 초점을 둔 사진에 비중을 두게 된다.

교과서의 질이 대폭 향상되지만 가격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내린다. 지금까지 중학교 불교교과서의 보급가격은 권당 1600~1700원으로 세 권을 합쳐 5000원대이고, 고등학교 불교교과서는 3500원에 보급됐었다. 그러나 포교원은 새 교과서부터 중고등학교용 모두 2500원에 지급키로 결정했다. 불교교과서는 그동안 다른 종교 교과서에 비해 1.5~2배가량 비싸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높았다. 포교원은 5000원 이상 예상되는 제작원가에 대한 적자 분을 달력판매 등 문서포교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교과서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포교원 산하 조계종 출판부 신용산 부장은 "이번 교과서 개편의 중심은 외형적인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불교의 현대화된 모습과 그 활동상에 비중을 두는 것"이라며 "종립학교 외에 전국의 청소년 단체 등 불교교과서가 필요한 곳에서 배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여름사찰수련 2만명 참가

조계종 본사 포교국장 회의

"청소년 수련법회 늘려야"

올해 여름 사찰 수련법회는 142개 사찰에서 실시해 모두 2만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 수련법회 부족 및 홍보와 사찰간 정보공유 미비, 프로그램의 단조로움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제4차 전국교구본사 포교국장회의에서 포교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42개 사찰이 개최한 수련법회 중 어린이 대상은 124개 사찰에서 126회, 청소년 대상은 39개 사찰에서 42회, 일반인 대상은 43개 사찰에서 96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대상 수련법회가 일반과 어린이 대상에 비해 2~3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1개 교구본사의 경우 16개 사찰이 참선수행 위주로 실시한 반면 가족수련법회는 용주사 단 한 곳뿐이었고, 수련법회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수련법회를 실시한 사찰은 해인사 대둔사 2개 사찰에 불과해 가족수련회 및 경험자 수련회 활성화 등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늦어도 6월말까지는 수련회 일정을 확정해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찰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제공에 활용토록 하며 △가족단위 수련법회를 늘리고 △초심자, 경험자 등을 구분 효과적인 수련법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수련법회에 참가한 인원을 꾸준히 관리, 이들이 다음해 수련법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포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영광 낙월도에 포교당 짓는다

섬마을 전법단, 곧 부지선정…임시법당 마련

전남 영광군 낙월도에 포교당이 생긴다. 최근 낙월도 답사를 실시한 동산반야회 섬마을전법단(단장 김재일)은 23일 "섬 주민들과 포교당을 건립키로 합의했다"며 "9월 초 부지선정을 마치고 임시 법당을 만드는 등 낙월도 포교에 나선다"고 밝혔다.

낙월도 포교당 부지로는 사용되지 않는 면사무소와 민가로 잠정 결정됐다. 전법단은 부지 선정이 마무리되는 9월 초 불상과 불서를 가지고 낙월도를 방문, 포교당이 건립되는 동안 장길림(70세) 할머니가 기증한 집을 임시법당으로 활용해 섬 주민들의 신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이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섬 주민, 특히 선주들이 년 1회 풍어제와 천도재를 부탁하며, 포교당 건립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며 "앞으로 건립될 포교당은 섬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 섬 주민의 불심을 키우는 차원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법단은 출어 기간이 긴 여름과 가을에는 여성을, 출어 기간이 짧은 겨울과 봄에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 섬 주민 포교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7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낙월도는 영광군의 유일한 섬이다.

오종욱 기자

종교인 협동조합

'공동선' 24일 창립

불교,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 등 종교인들과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 '공동선'을 창립했다.

이들은 24일 서울 명동성당 옆 전진상교육관 1층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94년 천주교를 기반으로 창간됐던 격월간 잡지 <공동선>(발행인 호인수 신부)을 재창간하고 10월부터 매달 스님과 신부, 수녀 등과 조합원, 독자들이 사찰과 수도원 등을 답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조합장은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인 종림 스님과 부산 가톨릭대 석찬귀 교수, 종교인환경회의 공동의장인 원불교 이선종 교무가 맡았다. 불교계에서는 실천불교승가회 의장인 청화스님, 종교인 환경회의 공동의장인 수경스님, 시인 신경림 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10월 중순 2백여명 대상

군종병 첫 집체교육

군승단 "시범실시…내년 전군 확대"

군승단과 포교원이 10월 중순 대규모 군종병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군승단(단장 이종인 법사)은 17일 국방부 군승단실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3군 사령부 예하 군종병 2백여명을 대상으로 군승단 집체교육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에 9월 14일까지 실무자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군승단 기획국장 김성준 법사는"군종병 집체교육이 군사령부 규모로 이루어 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경기지역 군종병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장단점을 분석해 내년에는 전체 군종병을 대상으로한 집체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종병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법회 진행을 위해 각 종교별로 실시되고 있는 군종병 집체교육은 개신교와 카톨릭이 10여년전부터 매년 1~2회 정도 전체 규모로 시행하는 반면, 불교계에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단별로 진행돼 왔다.

손상훈 포교원 군불교사무관은 "현재 실무법사들과 심도 있게 논의중이지만 서울 인근의 전통사찰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교육에는 효율적인 법회 진행교육을 비롯해 불교레크리에이션지도, 불교 기초교리 강의, 불교 습의의식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 사무관은 "군종병들의 소속감을 높여주기 위해 임명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이 시행되면 군종병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기자



◇8·15방북 남한불교대표단은 16일 평양 광법사에서 열린 8·15 조국통일 기원법회에 참석했다.

北에 단청 기술·재료 지원

방북대표단, 조불련과 합의

북한사찰 단청을 위한 재료와 기술이 지원된다.

8·15 방북 남한불교대표단은 20일 평양 조선불교도연맹을 방문하여 남북불교회의를 갖고 북측이 제안한 단청관련 지원 건에 대해 협의했다. 또 남북사찰결연사업 등 남북불교의 상호관심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를 올해 내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은 "단청 재료와 전문가 기술지원을 남측 불교계에 요청한다"며 "인도적인 사업을 통해 한발 더 나아가는 통일교류 사업을 하자"고 밝혔다.

조선불교도연맹이 이번에 제안한 단청 지원은 이미 태고종과 평화통일불교협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도 요청했던 사안이다.

방북대표단은 23일 종단협의회장 정대스님에게 방북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북측의 공식제안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정대스님은 "여러 종단이 연합해서 북한불교계에 단청 재료와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북대표단은 16일 평양 광법사, 19일 묘향산 보현사를 방문하여 공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방북대표단에는 법타 진관 명진 도각 세영 효림 지일 법현 본자 무원 법의 장적 스님, 지현정사, 대불청 김규범 회장, 총무원 전형근 과장 등 15명과 도안 스님을 비롯, 해외대표단 8명이 동참했다.

김원우기자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조계사, 학부모 입시특강

조계사가 23일 오후 대웅전에서 학부모를 위한 입시특강을 열었다.

EBS 수능특강 언어영역 담당 강사인 이석록 선생(서울 화곡고)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특강은 특강 취지에 맞게 대학입시 전형이 어떻게 이뤄지고, 또 각 과목별로 효과적인 학습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의 핵심은 학부모가 자녀들 스스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석록 선생은 △목표를 높게 잡고 △잘하는 영역과 뒤지는 영역을 구분해 학습 전략을 세우며 △모의고사에 적극 참여해 시험의 여러 관습과 장치를 완전 자동화해 둘 것 △학습 계획을 스스로 평가하고 부단히 수정 실천하며 △생활의 규칙과 계획을 유지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 간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도와주세요

암투병 불교인권위 간사



불교인권운동을 위해 헌신해 온 불교여성회 사무국장 조혜은(45, 사진) 간사가 유방암에 걸려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1차 유방암 제거 수술을 받은 조 간사는 22일 퇴원했으나, 6개월간의 항암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애태우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을 도와 불교 인권 운동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해 왔다. 국민은행 022-21-0725-681(예금주 박용모). 김재경 기자

'마음고요禪房
불교방송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정목스님의
작고 고요한 공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거리
☎ 02) 548-0218, 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